지역개발연구 제36권 제1호, 2004년 6월, pp.23-39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경제교육의 방향

박 상 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몇 가지 특성들은 뇌본주의 도래,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이동, 노하우(know-how)의 시대에서 노우웨어(know-where)의 시대로 중심축의 이동, 재-테크의 시대에서 시-테크의 시대로의 이동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경제교육 내용 등을 분석해 보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학교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학교 경제교육의 방향으로서는, 미시적 측면으로서는 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교육 ② Positive-Sum 인식의 실현 ③ 디지탈 경제로의 이행 ④ 건전한 소비와 적정한 저축의 필요성 ⑤ 소득분배 개선의 중요성, 거시적 측면으로서는 ① 글로벌경제에의 적극적 대응 ② 경제의식과 제도변화의 중요성 ③ 경기변동과 총수요, 총공급의 활용 ④ 상호의존성과 상호경쟁성에 대한 교육을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식기반사회, 뇌본주의(brainism), 디지털시대, 노우웨어(know-where) 시대, 시-테크시대, 학교경제교육

Ⅰ.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말로 후기 산업화사회를 지나서 지식기반경제 또는 지식기반사회라고 말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주된 생산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의 중요성이 줄고 있는 반면,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존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주도경제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OECD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탱하는 지식기반 산업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투입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부가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 등이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신소재·극미세기술(NT), 신에너지·환경(ET),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

*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화: 063-281-7136, e-mail: sspark@jnue.ac.kr

템(MEMS) 등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요 지식기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에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고등학교)에서도 경제를 사회 교과내의 과정별 필수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각각 편제하여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별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방향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경제현상의 변화 추이를 알아봄과 동시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경제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교 경제교육이 어떤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지식[1]기반사회의 도래와 학교 경제교육

1. 지식기반사회[2]의 도래

21세기 우리 사회는 정보 통신, 생명 공학 등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및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지식 집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지식기반사회로 본격 이행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지식산업의 GDP 평균 기여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는 99년 말 현재 20.5%에 불과했으나 최근 급속히

1) 지식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는 다른 생산요소이며, 지식은 사실과 아이디어의 축적 뿐 아니라 수용자의 평가와 해석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지식은 또한 경제적 자본과 대비되는 '문화적 자본'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2) Daniel Bell(1979)은 후기산업사회를 '지식기반사회'로 기술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와서야 현대사회에서의 '지식'과 지식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국가적 경쟁 우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즉, 인적 자원이 생산이나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는 사회로 이제는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뇌본사회(腦本社會)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3)]

그렇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산업자본이 지배하던 20세기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자본이 아닌 인적자원과 지식이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속도가 점점 단축될 것이며, 인적자원의 핵심이 되는 지식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에는 수확체증의 원리가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산업사회가 수직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라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인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그 동안 대기업 중견간부로 대표되던 중산층의 개념도 개인의 전문지식을 최대로 발휘하는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은 과거의 조직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력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조적이고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외국어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도 갖춘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맞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전의 산업화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 첫째는 뇌본주의(腦本主義)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제품을 통해서 보면 근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체보다 두뇌에 의해 창출된 콘텐츠에 의해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보다는 손에 잡히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경쟁력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요즘 국내에서나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는 제품은 오락게임이 내장된 휴대폰, 인공지능 세탁기처럼 기존의 제품에 지식요소가 가미된 소위 스마트제품들이다. 둘째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세대의 중심 축이 바뀐다는 것이다. 즉 아날로그세대에서 디지털세대로 힘의 균형이, 일은 디지털세대가 하고 결제는 아날로그세대가 시행하던 부조화의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하우(Knowhow)의 시대에서 노웨어(Knowwhere)의 시대로 그 중심 축이 뒤바뀐다는 것이다. 즉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을 강조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what)?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3) 이종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체제 구축", 『교육진흥』, 통권 48호, 2000, pp.123-124.

(where) 있는가? 정보를 빨리 선점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財)테크의 시대에서 시(時)테크의 시대로 이동한다는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다.[4)]

2.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 경제교육 내용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기본 지식의 이해, 경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의 형성,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민공통기본과정(1-10학년)과 고등학교(11-12학년)으로 구분하여 경제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공통기본과정의 경제 교육 내용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에서 경제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슬기로운 생활'에서 '가게놀이'라는 단원에서 출발하여, '사회'과목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초등 4, 5학년과 중학교 3학년(9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 비교적 체계적 구조화를 이루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3학년에서 우리 고장의 생활에서 재화와 시장, 직업, 근로, 산업, 상호의존, 정부의 역할, 공공재 등을 다루고, 4학년에서 시·도의 생활, 가정의 경제생활을 통해 희소성과 선택, 소비와 저축, 생산과 무역, 화폐와 교환 등의 기본 경제 활동도 다룬다. 그리고 5학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보화시대의 생활과 산업이라는 단원을 통해 경쟁, 국민소득, 기업과 산업 및 대외 경쟁력에 대한 개념도 배운다.

중학교에서의 경제 내용은 1(7학년), 2학년(8학년)에서는 다루지 않고, 3학년(9학년)에서 미시 경제를 주로 다룬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연계 과정으로 보아서 중학교 3학년(9학년)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의 경제생활'과 '시장경제의 이해'로 설정하여 미시부분을 다루게 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주요 내용은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으로 설정하여 거시부분을 다루게 하였다.

---

4) 박상선, "신자유주의와 우리대학의 대응 방안", 전주교육대학교 세미나, 2001.

<표 1> 국민공통기본과정 '사회'에서의 경제내용[5)]

내용 / 학년	단원 : 주제(주요 개념)
3학년	○ 고장의 모습과 생활 - 고장 사람들의 삶 : 자원, 직업 ○ 고장 생활의 중심지 - 시장과 물자 이동 : 재화, 시장
4학년	○ 지역사회 • 지역의 자원과 생산 : 생산 활동, 수출, 공공 서비스 • 물자 유통과 상호의존 : 산업, 교환, 유통, 화폐, 전문화, 상호의존, 가격 형성 ○ 가정 살림 - 가정의 살림살이 : 희소성, 가계, 소득, 소비, 저축, 용돈쓰기
5학년	○ 세계속의 우리경제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기업, 재화, 용역, 산업분류, 기술개발, IMF 자금 지원 • 정보화 시대의 산업활동 : 정보, 경쟁력, 기술개발, 경제발전
6학년	○ 함께 살아가는 세계 -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 : 무역
7학년	없음
8학년	○ 서양 근대 사회(세계사) - 근대 사회 발전 : 산업혁명, 자본주의 ○ 현 대 세계의 전개(세계사) - 세계 대전 : 독점 자본주의, 대공황
9학년	○ 민주시민과 경제생활 • 경제문제 해결 : 희소성, 기회비용, 비용 - 편익,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의사결정), • 경제체제 : 자유시장경제(연원, 장점), 미래 경제 •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 소비자, 근로자, 기업가, 납세자, 정책 결정자, 과소비 ○ 시장경제의 이해 • 시장경제 특성 : 시장경제 원칙(헌법적 근거), 시장경제의 문제점 • 가격의 결정과 변동 : 가격기구, 수요공급 법칙, 가격의 기능 •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 경쟁, 공익
10학년	○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 GDP, 경제성장률, 자본축적, 정부규제 •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 방안 : 물가(원인, 대책), 실업, IMF 자금지원,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식기반경제 등 •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 비교우위, 환율, 국제수지, 국제경쟁력

2)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제 교육 내용[6)]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지나서 고등학교 2(11학년)학년, 3학년(12학년) 되면 경제교육은 선택 과목이 되는데 교양선택군의 '생활경제'(4단위)와 심화선택군의 '경제'(6단위)이다.

5) 김정호,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2002)에서 인용(pp.6-9).

6) 김정호(2002), 앞의 논문에서 인용(pp.13-15).

<표 2> 고등학교 생활경제의 내용

영 역	내 용(주제 : 주요 개념)
일상 생활과 경제	• 경제 생활의 기본원리 : 경제주체와 객체, 경제적 사고 •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 기본 경제문제, 기회비용, 경제체제 • 경제 생활의 미래 설계 : 합리적 선택,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윤리
경제 정보의 활용	• 미래의 생활 환경과 정보 : 정보사회 • 경제적 의사 결정과 정보 활용 : 정보의 종류와 표현 방식 • 경제 정보의 선택과 활용 : 정보 수집, 정보 평가
가계와 소비 생활	• 가계와 경제 생활 : 합리적 소비, 소비의 기능(절약의 역설) • 가계 계획과 저축 : 소득, 신용(신용카드), 생활설계 • 물가와 경제 생활 : 물가와 화폐가치, 물가지수, 물가변동 •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 소비자 문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책임, 소비자보호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 관리	• 투자와 투기 : 주식, 저축과 투자 •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관리 : 저축, 자산, 신탁, 주식, 부동산 투자 • 거래와 계약 : 매매계약, 전자상거래, 주택임대차보호법 • 미래 사회에 유용한 자산 : 미래의 자산관리
고용과 직업 생활	• 일과 직업의 세계 : 직업의 의미, 직업선택, 진로 계획 •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 : 신생 직업, 청소년의 희망 직업, 고용구조 • 노동 시장과 직업 선택 :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임금, 직업 의식 • 취업 정보의 수집과 직업 설계 : 고용보험, 구직, 취직, 사원 채용 • 직장과 노사 관계 : 직업인의 권리와 의무, 노사관계, 신노사 문화
기업과 창업 활동	• 기업과 기업가 정신 : 시장경제와 기업, CEO, 혁신, 기업윤리 • 기업 원리와 경제 생활 : 기업 분류, 이윤, 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조건 • 생업 및 창업 : 벤처 기업
국제화와 경제 생활	• 국제화와 시장 : 글로벌 경제, 시장개방 • 조세와 국민 생활 : 조세 분류, 조세의 기능, 세금 구제 • 환경과 경제 : 환경문제, 친환경적 생활, 환경 효율성(eco-efficience)

주로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교양 선택군(생활경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 진로 선택, 생태와 환경)은 평가를 하지 않는 과목이며, 교과서도 인정 도서이다. ‘생활경제’는 미래 경제주체로서 경제적 역할 수행을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목이다.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정인 ‘경제’ 과목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기초적인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선택과목인 만큼 내용의 정도를 높은 수준으로도 설정하여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르친다. 시장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선택

<표 3> 고등학교 심화 선택에서의 경제의 내용

영역	주제	내용요소(주요 개념)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 경제 생활의 의미 ○ 경제문제의 해결 방법 ○ 제체제의 변천 과정	• 신뢰, 의사결정, 지속가능개발 •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비용-편익, 한계분석 • 시장경제, 계획경제, 헌법의 경제조항, 남북한의 경제 • 경제 의식과 이상적인 경제 질서
시장과 경제 활동	○ 시장 가격의 기능 ○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 ○ 시장기능의 한계와 대책	• 효용, 교환, 특화, 시장기능, 경쟁, 시장 종류(경쟁시장, 독과점 시장) • 수요공급(법칙, 곡선), 균형, 물가지수, 탄력성, 투기 • 시장 실패 :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 정부 개입, 정부 실패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 바람직한 소비 선택 ○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 책임 있는 재정운용	• 소득, 소비, 저축, 자산, 이자율(명목, 실질), 총수요 • 합리적 소비 : 계획성, 비용과 편익 분석, 소비의 외부효과 • 합리적 기업 경영 : 기업가 정신, 생산의 효과, 이윤, 기업 의 이해 관련자(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기업 윤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 재정의 기능(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기조절) • 재정 구조 : 재원 조달(조세), 재정 지출, 정부의 효율성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 국민 경제의 흐름 ○ 경제성장과 안정화정책	• 경제 순환(호황, 불황), 총공급, 총수요, GDP • 경기 변동 :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실업(종류) • 경기 대책 : 재정정책, 금융 정책(통화량,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변경, 재할인율 조정, 이자율 결정) • 경제 성장률, 물가지수, 실업률, 소득분배(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 국제 거래와 경쟁력 ○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 인류공동체와 경제협력	• 무역 : 한국의 무역구조, 시장 개방, 비교우위, 환율, 국제 수지, 외환 위기, 국가 신인도, 국제 경쟁력, WTO • 한국 경제의 미래 : 국제 경쟁력 향상(투명성, 노사화합, 친기업환경, 규제 개혁 등), 통일한국의 경제 •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 국제 경제 마찰, 국제 경제기구,세계 경제 문제(환경오염, 자원고갈, 빈부격차, 금융 위기, 실업, 세계화, 인류공동체)

할 수 있는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 현상을 소재로 하여 개념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Ⅲ.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제교육의 방향 모색

앞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경제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교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식은 사회적 행동의 근원과 합리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러한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강조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시적 측면

1)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합한 교육

1999년 여름 중국 양쯔강에서는 역사상 큰 홍수가 났다. 그 해 가을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고,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송이버섯 수입 주문이 밀려들었다.

이들 세 사건은 별개로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얽히고 설킨 것이었다. 대홍수로 인해 중국의 송이버섯 생산량이 줄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제제재로 일본이 금수조치를 취하자 한국의 송이버섯에 대한 특수가 생겼던 것이다.

이런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른 채 단순히 송이버섯 특수라는 현상만 보고 송이버섯의 재배를 늘렸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양쯔강의 물난리는 1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일이고 일본이 북한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 또한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이같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환율이 급등락하고 자금경색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두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기업은 항상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주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경우에도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의 송이버섯 가격이 급등하겠구나 하는 추리력으로 시장전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7]

최근 기업에게 복잡하고 빠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경제는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에 있어 국경의 개념이 열어진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식·정보화의 흐름 역시 기업에게 중요한 변화이다. 정보화 혁명은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판도를 또 한번 갈라놓을 것이다. 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구조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극복해야 나가야 할 과제이다.

2) Positive-Sum의 실현

A대학교의 주인은 소위 말하는 3주체 즉, 학생, 교수, 직원이라고 한다. 그 학교 한 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보자. Zero-Sum(제로 섬)이 존재하는 한 학생은 교수와 직원들 견제하고, 교수는 교수들대로 교수들의 예산 늘리려 하고, 직원들도 또한 자기들의 예산 늘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 항상 긴장, 견제하기 시작한다.

어느 부서나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로 섬이 실현된다면 항상 견제하고 갈등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는 제로 섬 사회였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앞서있는 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 선진국에 들 수 있었다.[8]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국가들을 무력 지배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원료공급지·상품판매지·자본투하지의 3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제로 섬 사회에서는 갈등과 견제, 부(富)의 이전만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Positive-Sum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간의 협조, 단합해야 한다. 즉 파이를 키워 나눌 수 있을 때 각자가 전부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국가 간에도 건전한 무역을 통

---

7) 김재철, "지식기반사회의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교육마당』, 2001년 8월호, pp. 44-48. 기업의 경영환경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지털의 성능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법칙에 잘 설명되고 있다. 우선 마이크로칩의 처리능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창업자인 Gorden Moore의 이름을 따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 경제학자인 George Gilder는 컴퓨터의 전송속도가 향후 10년간 매년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길더의 법칙'이라고 한다.

8) 이러한 현상들은 굴뚝경제라 부른다. 굴뚝경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자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경쟁을 벌여 왔다.

해 이익을 추구할 때, 각 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Win-Win 게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생(相生)의 윤리 또는 공생(共生)의 윤리로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우리나라에서는 IMF 위기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육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98년 12월에 2,042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 수가 2001년 12월 현재 11,392개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9] 따라서 벤처기업은 디지털 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기술 및 우수 인력 기반의 벤처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경제학 이론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려고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근대경제학의 근본원리인 '희소성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대신하여 '풍요의 법칙(law of plenitude)'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제기되고 있다.[10] 또한 정치경제학의 근본원리인 '노동가치론'을 '지식가치론' 혹은 '정보가치론'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결국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 모두에 대해 성찰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진행형으로서 디지털 경제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이라는 무한경쟁원리와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글로벌화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을 가중시키고 있다.[11]

'지식'과 '정보'는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에서도 중요하였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가치 창출의 지배적인 범주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라는 비트(bit) 상품이 새로운 주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비트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식노동의 투하를 전제로 하여 객관화된 산물이다.

4) 건전한 소비와 적정한 저축의 필요성

최근 우리의 소비행태가 지나치게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자동차, 의류, 등 고가의 수입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과시적 소비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

9)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실태조사』, 2001, p.103.

10)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경제법칙을 제시하는 대표적 논의로는 Kevin Kelly(1998), Don Tapscott(1997, 1999), Michael H. Goldhabor(1997) 등을 들 수 있다.

11) 정보의 잉여가치 창출 메카니즘과 '지식가치론'을 제시한 대표적 논의로는 Jerry Harris (1995)과 James Curry(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종한(1999, 2000)을 참조.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소비증가가 저축과 소비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과소비적 경향에 흐르고 있다.

저축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경우 케인즈(J. M. Keynes) 이론에서는 절약의 역설로 설명하고 있는데, 적정한 소비와 저축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적 성장이론이라 할 수 있는 해로드-도마(Harrod-Domar)의 성장이론 모형의 기본성장 방정식은 gc=s이며, 따라서 g=s/c가 된다. GNP의 자연성장률 g는 국민저축률(s)에 비례하고, 자본산출비율(c)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 등식을 이용하면 경제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의 하나는 저축되는 국민소득의 비율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해로드-도마의 성장방식을 따랐던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본계획도 오직 자본축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자본축적의 증대를 위해서는 저축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저조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IMF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국민들의 과소비와 호화사치 때문에 곤욕을 치뤘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건전한 소비와 적정한 저축의 필요를 느껴야 할 때다.

5) 소득분배 개선의 중요성

최근 통계청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1년의 0.274에서 1996년에 0.290으로 약간 악화하고 2000년에는 0.351로 크게 악화됐다. 현실세계에서 지니계수가 0.30 이하이면 분배상태가 양호하고 0.40 이상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1991년과 199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1990년대에 들어와 약간 개선되거나 현상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IMF위기 이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1996~2000년에 고소득층의 소득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분배가 악화되었다. 이 기간 중 소득분배의 급속한 악화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실업증가, 상대적인 저성장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저실업이 소득분배 개선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확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성과급 확대,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정보격차, 이혼율 상승에 따른 여성 가장가구 증대, 노령화 진전

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등의 요인은 소득분배의 개선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거시적 측면

1) 글로벌경제의 적극적 대응

가. 미국의 맥킨지연구소는 전 세계 총생산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7년에는 21%였지만 30년 후인 2027년에는 무려 8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나.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옆에는 실리콘 밸리가 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IT산업에서 땀흘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기업을 상대로 경쟁하면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12]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공과도 무관한 법률 책을 읽으면서 고시촌에 틀어 박혀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13]

이는 앞으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며, 국제화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한편,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한국의 경우에 기존 시스템의 전환에 착수하였지만,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경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의식구조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수출입/GDP가 70%를 웃돌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도 61%에 달하는 등 대외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부존자원이 변변치 않은 우리가 앞으로 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물류, 관광, 비즈니스,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

12) 김재철, 앞의 논문, 2001.8, pp.44-48.

13) 김재철, 앞의 논문, p.45. 우리나라의 경우 IT인력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 재수생이 늘고 있지만, IT분야에서는 현재 부족인력이 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약 18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경제의식과 제도 변화의 중요성

미국의 경제 일간지 Wall Street Journal은 2000년 5월 22일자에서 '악성 부채, 눈가림식의 기업구조조정 등이 한국경제를 괴롭히고 있으며 은행들에 부담을 주고 공적자금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도 2000년 5월 보고서에서 '그 동안의 한국 경제개혁은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별로 변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경제의 지표상의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7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단순한 외화유동성 부족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제도의 낙후성과 전근대적인 경제의식 및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지나친 인간관계에 의한 경제거래의 합리성 결여라든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경제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다.

한국의 경제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외부로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경제의식과 관련이 깊은 소비나 저축,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과 같은 경제변수들이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관심있게 교육시켜야 한다.[14]

3) 새로운 경제블록의 필요성

한국 경제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21세기 동북아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발전적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윈-윈 전략에 의한 공동 번영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의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맺고 통합계획을 추진하려는 지역주의의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정점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질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적으로 배타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풍부한 저임 노동력

14) 송대희·이성표·심재학, "IMF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경제교육』,KDI경제정보센터, 2000.12., pp.5-35. 경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할 때, 대외개방의식, 시장경제질서 정착, 소비생활과 관련한 의식 외에도 여러 다른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제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이 달라진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경제블록의 필요성이 시급한 일이 되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써,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며,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한중일 3국은 국가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상호의존성과 상호경쟁성의 심화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까 전전긍긍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다시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품도 중동지역에 이전처럼 원활하게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유지될까 걱정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각 국 경제간의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 간, 기업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각 국의 상호경쟁성도 심화되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 통신, 교통혁명의 결과로 시간과 공간이 축약되어 각 국가와 사회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고,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경쟁성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산업사회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정보화, 사회화 및 국제 경쟁의 심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지역별, 권역별로 경제 블록화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교육은 WTO체제를 잘 이해하고, 지구촌화 되어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블록화의 미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습득해 실무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을 쌓아야겠다.

Ⅳ. 맺는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 및 가치창출

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창출, 축적 및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학교 경제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일도 매우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기본 지식의 이해, 경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의 형성, 건전한 경제의식의 함양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제교육을 모색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경제의식 고양과 함께 창의적인 생산자, 건전한 소비자, 성실한 근로자, 합리적인 투자자로서 자라게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러한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강조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교육, ㉡ Positive-Sum의 실현, ㉢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 건전한 소비와 적정한 저축의 필요성, ㉤ 소득분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거시적인 측면으로는 ㉠ 글로벌경제의 적극적 대응, ㉡ 경제의식과 제도 변화의 중요성, ㉢ 새로운 경제블록의 필요성, ㉣ 상호의존성과 상호경쟁성의 심화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글로벌화의 진전과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세계국가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즉 아동기 때부터 범국가 차원에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체계성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1997.
교육부, 『교육과정 해설- 고등학교 사회, 경제』, 2001.
교육부,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자료집, 2000.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실태조사』, 2001, p.103.

강태권/김진영, “한국 경제교육의 현상과 이해”,『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0. 12., pp.99-115.

김경환・김종석 역,『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pp.677-689.

김재철, “지식기반사회의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교육마당』, 2001년 8월호, pp.44-48.

김정호,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방향과 내용체계”, 한국경제교육학회 세미나, 2002.

박상선, “신자유주의와 우리 대학의 대응 방안”,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세미나, 2001.

송대희・이성표・심재학, “IMF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경제교육』, KDI경제정보센터, 2000.12., pp.5-35.

안병근,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내용의 검토”,『초등사회과교육』 제13집, 2001, pp.141-170.

이수오, “지식사회를 위한 산・학・연의 협력”,『교육마당』, 2001년 8월호, pp.54-58.

이종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체제 구축”,『교육진흥』, 통권 48호, 2000, pp.123-124.

장선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제7차 교육과정 후속지원 초・중 연계 워크숍 자료, 2002. 5. 1.

조도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경제교육”,『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0. 12., pp.36-47.

최병모,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편성과 운영”,『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0. 7., pp.78-98.

Kelly, Kevin,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1998./오재섭 옮김,『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황금가지, 2000.

Goldhabor, Michael H., "The Attention Economy and the Net", Conference on *Economics of Digital Information*, Cambridge, MA, Jan., 1997, pp.23-26.

Tapscott, Don, The Digital Economy, 1997/ 김종량 역,『디지털 경제』, 창현출판사, 1997.

<Abstract>

Direction of School Economic Education in Knowledge-Based Society

Sang-Seon Park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the direction of shool economic education in knowledge-based society. We are now experiencing several change in the ongoing knowledge-based society. Due to its 'informatinal effe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came into important factors of production therefore, we have to change the direction of school economic education.

There are some special character in knowledge-based society. They are (1) importance of brainism (2) emergence of digital generation (3) consequence of knowwhere meaning ect. Therefore, direction of school economic education. in knowledge-based society turn into suitable contents in the 21th century. They are as followings:

First of all, as micro-economy (1) education suitable the rapidly changing enterprise environment (2) realization of positive-sum recognition (3) fulfillment into digital economy (4) necessity of a sound consumption and saving (5) importance of income distribution improvement. secondly, as macro-economy (1) positive correspondence to global economy (2) important of economic consciousness and institution change (3) necessity of new economic bloc (4) education of mutual interdependence and mutual competition.